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9
2026.01.05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부탄, 파리협정 제6조 ‘판매자 중심’ 탄소시장 전략 공식화
- 가봉 NDC 3.0 공개, Article 6·ITMO 활용 본격화
- 중국, EU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무역 대응 조치 경고
- 태국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별 수수료 체계 도입
- 도쿄증권거래소, J-크레딧 OTC 결제 서비스 도입 추진
- 일본, 청정전력 사용자에 13억 달러 투자 보조금 추진
- 일본, 대규모 태양광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부탄, 파리협정 제6조 ‘판매자 중심’ 탄소시장 전략 공식화

부탄이 2023년 채택된 탄소시장 규칙을 구체화한 ‘탄소시장 프레임 워크 2025’를 발표하며 국제 탄소 시장에서의 판매자 입지를 강화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외감축실적 (ITMO)의 설계, 발행, 승인, 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며 고무결성 감축 및 제거 성과를 기반으로 공정한 가격 책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함.

특히 Posi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승인된 사업에만 상응 조정 (CA)을 적용하고 IMO로 전환하는 한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국제 이전 없이 국가 감축 목표 (NDC) 달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이중 구조를 설계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국부 기구인 ‘부탄 기후 기금 (BCF)’이 자리하며, 소규모 감축 활동을 통합 관리하여 거래 비용을 낮추고 발생한 수익 및 수수료를 국내 감축·기후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재투자할 계획

이를 통해 부탄은 향후 10년간 고부가 ITMO 수출을 추진할 예정



가봉 NDC 3.0 공개, Article 6·ITMO 활용 본격화

가봉이 산림 보존과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골자로 한 NDC 3.0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BAU 대비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산림을 중심으로 파리협정 제6.2조와 6.4조를 모두 활용해 ITMO 이전과 크레디팅 메커니즘 참여를 추진하고, Verra·Gold Standard 등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도 병행할 계획

약 67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 이행 자금 조달을 위해 탄소시장을 기후금융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국내 탄소시장 도입과 내부 탄소 가격 설정을 검토하고 법·제도 정비를 진행할 방침

또한 산림 보호를 넘어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자원화 등으로 프로젝트를 다각화하고, 이익 공유 규칙 명확화,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 및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중국, EU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무역 대응 조치 경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이를 자국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

특히 EU가 2028년부터 규제 대상을 자동차와 가전 등 180여 개 하류 제품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넘어선 일방적인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무역 마찰 가능성을 시사함.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내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며 대응 중이나 EU와의 압도적인 탄소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 탄소 가격을 상당 폭 인상하지 않는 한 CBAM 대응 비용 부담 및 탄소 관련 수익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태국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별 수수료 체계 도입

태국 정부가 국내 자발적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T-VER의 프로젝트 등록 및 갱신 수수료 체계를 기존 일괄 요금제에서 감축량 규모에 따른 등급별 차등 요금제로 개편함.

이번 조치로 대규모 프로젝트와 고품질 프리미엄 T-VER 프로젝트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며, 크레딧 발행 단계에서도 발행 규모에 따라 정액 수수료와 톤당 추가 요금이 병행 적용돼 시장 진입 비용이 상승

이는 최근 탄소세 도입과 탄소 크레딧 거래제 구축을 포함한 기후 변화 법안이 승인되는 등 태국의 탄소시장 제도 정비 흐름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

태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47% 감축하겠다는 국가결정기여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를 핵심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제6.2조 협력 및 일본 JCM 참여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도쿄증권거래소, J-크레딧 OTC 결제 서비스 도입 추진

도쿄증권거래소 (TSE)가 오는 3월부터 일본 내 탄소 크레딧인 J-크레딧을 대상으로 장외 거래 (OTC)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이는 장외 거래 시 거래마다 신규 계약과 인도 절차가 필요해 실무적으로 복잡했던 기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외부에서 이미 체결된 거래라도 거래소의 기존 거래·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상 매칭 처리, 자금 결제, 크레딧 이전이 가능해짐.

초기 적용 대상은 개별 크레딧 단위 거래 수요가 높은 산림 부문이며, 향후 탄소 크레딧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수요를 고려해 다른 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동 조치는 2026년 4월부터 일본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GX-ETS)가 의무화되고 J-크레딧이 규제준수 수단으로 허용되는 등 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일본 탄소시장 거래 인프라를 정비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



일본, 청정전력 사용자에게 13억 달러 투자 보조금 추진

일본 정부가 탈탄소 전력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2,100억 엔 (약 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초점을 공급 확대에서 수요 창출로 전환함.

금번 조치는 탈탄소와 산업 정책을 통합해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내각에서 승인된 'GX 2040 비전'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집행될 예정

특히 탈탄소 전력 사용 비중이 높고 전력 생산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이터 센터 및 일반 기업이 자본 지출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해상풍력 비용 급등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역 반발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력 소비 주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국가적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일본, 대규모 태양광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일본 정부가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를 이유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

이는 중국산 패널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경관 보호를 강조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

2027년 회계연도부터 지상 설치형 대형 상업용 태양광에 대해 FIT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 및 FIP (Feed-in Premium, 발전차액보조제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30MW 미만 프로젝트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

기존 설비와 주거용 태양광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는 한편, 일본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

이는 자연 훼손, 경관 악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 기조에서 선별적·질적 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